

25.1.17.(금)

자치분권국 담당자: Tel 02-6788-3201

민생현장,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도 즉각 민생 안정시킬 추경에 나서십시오

2025년 1월 17일 (금)

17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는 비상시국 긴급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일동은 “지방정부가 정말 어렵다”며 “12·3 비상계엄 이전에도 2023년 56조, 2024년에도 30조에 이르는 역대 최악의 세수 결손과 교부세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지방사업 추진에 너무나 어려움이 컸지만, 중소기업의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와, 특히 취약 계층에게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는 상황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협의회가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기초단체장협의회 일동은 “작년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 ‘비상시국’ 회의를 통해 세수 결손에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 72개 지자체가 마른행주를 쥐어짜듯 아낀다면 지자체별 예산 15억은 최소한 마련할 수 있겠다” 싶었다며, “72개 지자체면 1,000억의 재원으로 발행규모 1조 원대를 만든다면 어두운 지역 경제에 조금의 숨통을 틔울 수 있겠다는데 의견이 모였다”며 “그래서 추경 혹은 본예산이 확정인 안 된 곳은 본예산에 추가 재원을 좀 더 확보하자고 의논했다”라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장협의회 일동은 “그렇게 의견을 모아 최종 재원을 확보한 결과 우선, 48개 지자체가 우선 참여해 긴급 추경 또는 본예산에 더하여 총 1,962억 1,500만 원 규모로 계획보다 2배 가까이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며 “지자체 예산이 그렇게 되면 지역화폐의 전체 발행 규모는 약 2조~3조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추가 지역화폐가 발행된다면 얼어붙은 지역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더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최대호 회장은 “지자체의 쌈짓돈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내란에 이어 제주항공 참사까지 일어나 소비절벽이 장기화하고 있다”라며 “예산 조기 집행 같은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정부 당국은 신속히 추경에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2025. 1. 17.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붙임1 :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입장문

붙임2 : 지역화폐 추가발행액 현황

붙임 1 :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입장문

민생현장, 더불어민주당 단체장이 앞장서겠습니다.
정부도 즉각 민생 안정시킬 추경에 나서십시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우리 지방정부의 국민의 안전, 보건, 복지, 교육, 문화 등 생활과 직결되는 숙원 사업들이 부족한 재정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과 경제 약자들은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며, 불법 대부의 늪에 빠져 빚으로 생계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석 달 이상 연체자가 2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십만 원 대출에 수천%의 금리가 적용되는 불법추심 사채업자가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안전망이 사라지고 있으며, 서민들이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으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는 온통 빨간불입니다. 중소기업인들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삼중고에 시달리며, 특히 취약 계층에게 더욱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연말 대목은 사라졌고, 중소기업인들은 소비절벽에 직면해 아사 직전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전국 17개 시도가 일제히 소비를 줄였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사라진 12월 연말 특수'라는 제목 아래, 전국 카드 이용이 평균 26.3% 감소했으며, 서울은 29.3%, 경기도는 23% 감소했습니다. 경제 위기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더욱 혹독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 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생회복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민생경제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들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71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중 48개 지자체는 긴급 추경 또는 본예산에 더하여 총 1,962억 1,5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체 발행 규모 2조~3조 원의 지역화폐를 추가 발행하여 얼어붙은 지역 민생경제에 온기를 더하고자 합니다. 미참여한 23개 지자체도 지역 의회와 협의하여 추가 참여할 계획입니다.

8개 지자체는 예산 절감을 통해 약 2,40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 지역민에게 민

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각자는 없는 살림에 한 푼이라도 더 지역화폐를 유통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말로만 지역경제 살린다고 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주십시오.

예산 신속 집행은 기존에도 하던 것입니다. 비상시국엔 비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민생안정 자금의 신속한 추경을 통해 지역경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야당뿐 아니라 경제단체와 자본시장 전문가들도 신속한 추경만이 소비절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내란에 이어 제주항공 참사까지 일어나며 소비 절벽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집행 같은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상황입니다. 국민이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합니까? 민생 추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닙니다. 국란에 비견되는 시기에 신속한 비상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 당국은 국민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민생 추경에 나서주십시오. 지금은 행동할 때입니다.

2025. 1. 17.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붙임 2 지역화폐 추가 발행액 현황 [25.1월 기준]

□ 48곳, 약 1,962.15억원 예산 추가 편성 예정

(단위: 억)

연번	자치단체명		추가발행예산	연번	자치단체		추가발행예산
1	경기도	안양시	50	25	전북 특별자치도	무주군	20
2		수원시	200	26		장수군	20
3		화성시	250	27		김제시	53
4		평택시	16	28		순창군	40
5		안성시	38.4	29		진안군	80
6		광명시	100	30	전라남도	장성군	35
7		부천시	70	31		화순군	30
8		파주시	55	32		보성군	31
9		시흥시	74	33		곡성군	10
10	서울 특별시	노원구	2.85	34		장흥군	20
11		성동구	12.6	35		영암군	20
12		은평구	3.5	36		해남군	60
13		금천구	3.4	37		무안군	34
14		성북구	35	38		담양군	30
15	충청북도	옥천군	40	39		영광군	15
16		음성군	30	40		나주시	30
17		진천군	30	41		강진군	64
18	충청남도	부여군	40	42		광양시	30
19		청양	15	43	광주 광역시	동구	8
20	대전 광역시	중구	15	44		서구	8
21	전북 특별자치도	정읍시	44	45		남구	8
22		익산시	100	46		북구	8
23		전주시	50	47		광산구	8
24		남원시	20	48	강원 특별자치도	춘천시	5.4
총합계							1962.15

※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각 지자체 할인율(5~10%)에 따라 상이함 (10% 적용 시, 10배 규모)